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9월 30일 (제97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벤세메스로

가립니다 벤세메스로

가립니다 벤세메스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립니다 벤세메스로

한 발자욱 두 발자욱

고갯마루 땀방울

핏방울로 변하는 길

가립니다 벤세메스로

저녁노을 바라보며

그 날의 영광 바라보며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립니다 벤세메스로

오 내주여 오 내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주신 가야할 길

이 길만은 가야할 길

朋友

붕 우 컬 럼

작은 것에 넘어진다

어느 누구도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작은 돌맹이에 넘어진다. 바위는 미리 조심하지만 작은 돌맹이는 우습게 여겼다가 미끄러져 넘어진다. 사람들은 대개 큰일에는 조심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지만, 작은 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넘어져 다친다. 작은 것

에 실수하고, 사소한 것으로 인간관계가 틀어진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작고 사소한 것에는 소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 16:10)고 말씀하심으로, 작은 일이나 적은 것에 주의하고 신경 쓰고 대비해야 함을 말씀하셨다. 기도 역시 아주 작은 것도 해야 한다. 사람들은 큰 것은 기도하지만 작은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것까지 기도하

느냐?’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까지 기도하셨다. 세밀하신 것까지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신다. 작은 것에서 사고가 나고, 작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작은 것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자 아이성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나갔다.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패했다. 죄에 관하여도 그렇다. 사기꾼이나 악한 자가 아니고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큰 죄

를 짓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작은 죄, 그저 눈감아줄 법한 죄, 스스로도 인식 못하는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에도 털미를 잡힐 수 있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조심하고 신경 써서 쌓아올린 큰 것까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다(살전5:22).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고, 한 방울의 물이 보여 강을 이루는 법,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들이 되자.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6:19~31)

지옥가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이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고 이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왕도 죽고, 영웅도 죽고, 한 시대를 뒤엎은 목사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한번 죽는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도 반드시 이뤄질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와 같이 영원히 사는 영존체입니다. 수한이 차면 옷을 벗듯 육신을 벗는 것일 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고전15:20).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흑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만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활을 얻느냐가 관건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이 이의 근거가 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단12:2). ‘땅의 티끌’이란 무덤을 가리키는 말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 후에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순교가 오더라도 예수는 증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최후 심판의 날, 백보좌 앞에 반드시 서야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계 20:11~15).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상에 법을 정해놓고 그 법 안에서 죄의 유무를 다루는데 영혼을 심판하는 기준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5:24).

미국 법에 비자 없이는 미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비자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자발급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비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자를 발급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총회장 이초석 목사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리에 극한 혐오감을 드러냅니다.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쾌해한다고 진리가 부정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돈이 많으니 잘 먹고 잘 살았지요. 매일 파티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집 앞에 굶고 있는 거지가 있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기 배만 두드리며 살았습니다. 집 앞에 사는 거지가 나사로입니다. 그는 부잣집 앞에서 개나 먹물 찌끼로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게 정한 이치인지라 세월이 가서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으로 가는 대기실인 음부에, 나사로는 천국가는 대기실인 낙원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살았으니 이제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부자는 음부에 갔을까요? 거지는 ‘못 먹고 못 살았으니 이제라도 호강 좀 해라.’ 그래서 낙원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문제입니

다. 부자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나사로를 구제하는 행위가 따랐겠지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허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눅16:24).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할 정도로 지옥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깥 어두운 곳(마8:12)’으로, ‘꺼지지 않는 불못(마2:41)’으로,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곳(막9:49)’으로, ‘영원한 멸망의 곳(살후1:9)’ 등으로 지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만은 절대 가 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그

야 하 지 않겠습니까? 나부터, 그리고 내가 족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답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고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동해 건너에 일본이 있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태평양을 건너면 미국이 있다고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나 있습니다. 계란 속의 병아리더러 계란 껍데기를 깨고 나오면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한들 어떤 병아리가 믿겠습니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지 누가 알았으며, 번데기가 나방이 되고, 구더기가 파리가 되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기한이 차니까 병아리가 나오고, 기한이 차니까 개구리가 되고, 기한이 차니까 나방이 되고, 파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한이 차면 죽을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말입니다.

이번 추석 때 비행기 표나 기차표나 버스표를 미리 예매해둔 사람은 제 시간에 터미널이나 공항에 가면 고향에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사지.’ 그런 사람은 티켓이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삶이니 미리 우리 고향, 천국행 티켓을 예매해놔야 합니다. 그 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청각적인 효과보다 시각적인 효과가 크다

이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사 43:8).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은 것은 우리의 육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보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믿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제가 세계에 나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오직 영혼구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목사들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도 없고, 능력이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훼방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사장이나 일반입니다(호4:9).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다음 세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만 가는 삶을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회사에 전화하면 와서 다 해결해주듯,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보험에 가입되어 힘들고 어려울 때, 병이 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보험사에 전화하듯 예수님께 전화, 곧 기도만 하면 다 해결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4).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도 복된 일입니다. 영·혼·육의 천국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가입에 제한도 없고, 보험지급도 무조건인 이 보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전하세요.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이분법의 함정

성경은 악한 마귀는 대적하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차원 높은 사랑과 관용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한 손에는 그들의 경전인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 그들의 종교나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죽이고 반대세력들과는 전쟁을 일으키고 살육하는 것을 성전이라고 미화하며 합리화합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서 수 천 년 된 세계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확신하는 것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을 희생해도 된다는 잘못된 사고에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탈레반식 사고는 창조적인 사고를 방해하며 심각한 편견과 오류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물이나 사회의 제반 현상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문제로 구분하여 악과 싸워서 이겨야하며 그 모든 악을 몰아내야 한다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고가 팽배해져가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악의 온상으로 여기며 각종 규제와 세무조사 등으로 숨통을 조입니다. 또한 갑과 을의 관계로 구분하여 ‘갑질’을 한다고 신문 방송에 대서특필하며 개인의 ‘신상 털기’와 프라이버시까지 노출시켜가며 창피주

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삶의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 적으로 간주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고이며 지양해야 할 일입니다.

중국에 마오쩌둥이 집권하던 시절에 어느 날 농촌지역을 순시하러 갔다가 밥을 굶주리고 있는 인민들을 보고 한 가지 명령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들판에 있는 참새들이 벼이삭을 다 쪼아 먹고 있으니 참새를 인민의 적으로 규정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참새를 다 잡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참새를 다 잡고 이제 풍년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사상 유래 없는 대흉년이 찾아와서 3천 만명 이상이 굶어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참새가 사라지니 해충들이 창궐해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회 전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순히 선과 악의 대립적인 측면으로 인식하고 풀어나간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대외 경쟁력이 있고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을 백안시하며 제거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상실되고 고용이 감소되어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적대감정을 버리고 여와 야, 좌와 우, 노와 사가 하나가 되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세상을 보는 창 ::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점심식사

2018년 6월, 인터넷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 흥미로운 경매가 열렸다고 한다. 경매품은 다름 아닌 ‘오마하의 현인’이자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과의 점심식사권이다. 버핏과의 오찬은 버핏 회장과 점심을 먹으며 투자 계획을 제외한 모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행사로 200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올해 경매 낙찰가는 역대 낙찰가 중 3번째로 높은 330만 달러(약 35억 5,000만원)에 낙찰됐다. 최고가는 2012년, 2016년에 낙찰된 345만 6,789달러(약 37억 2,000만원)다. 뉴욕의 소박한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단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점심식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사’이지만, 투자자라면, 돈만 지불할 능력이 된다면 누구나 한 번은 꿈꾸는 한 끼의 식사라고 한다.

그러면 약 35억을 점심값으로 지불하면서 과연 이 워런 버핏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 사실 그 비싼 점심을 먹는 이유를 인터넷을 통해 찾아봤다. 그 중 2008년도에 65만 달러로 낙찰을 받은 ‘가이 스파이어’가 있었다. 그는 워런 버핏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자

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이제 나의 목표는 버핏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진실한 내가 되는 것이다. 진실한 나를 통해서 진정한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성경 역대하 9장 1~9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으로 듣고 시험코자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놀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금과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스바 여왕은 땅 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점심식사를 경매에 붙인다면 얼마나 할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나 있을까? 그런데 그 값은 공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실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솔로몬보다 더 큰 주님이 우리를 매일 만나길 원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기 원하신다.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점심식사,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무엇이 우선인가?

자고이래 수많은 종교인, 철학자, 수행자들이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를 깨닫고, 영생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얻게 된 경지를 득도, 해탈이라 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했고, 석가모니는 왕국도, 처자식도 다 버렸다. 내가 구원의 길에 다다른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우선인 것을 알기 때문 아닌가.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모든 욕망과 고통과 살기 위한 수고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죽는 길 밖에 더 있는가. 삶이 고달픈 사람은 그래서 생명을 버린다. 어떤 이는 십 년 동안 늙지 않고 자지 않으며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궁극의 깨달음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그 치열한 과정을 다 이겨낸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아! 나는 속았다’고 외치고 임종했다고 한다.

우리가 죽어 천국에 자력으로 갈 수 있나? 길을 아는가?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믿음으로, 창조주께 의탁함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내 구원이 우선이다. 예수께서 실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점검해보라. 그저 ‘믿습니다’는 위험하다. 치열하게 간구하여 그 확신을 얻어야 한다. 무엇이 급한가? 무엇이 우선인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인생사에서 주님 만나 뵈고 인도하심을 받는 일보다 시급하고 복된 일이 있는가! 주님께 감사하며 다만 간구 드린다. ‘주님, 심판의 자리에서 더욱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권능이 충만하여 원 없이, 한 없이 쓰임 받다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광주 전도사

leekjlkj@naver.com



:: 생명의 말씀 ::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사는 일생동안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어느 성도가 그녀에게 묻기를 “당신의 얼굴은 늘 밝고 감사의 빛으로 차 있네요. 당신의 처지를 보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러자 그녀는 “감사의 조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자신이 비록 육체적으로 앞을 못 보는 소경이지만 불평이나 원망으로 삶을 비판하지 않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감사하고 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다.

원망이나 불평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다. 사탄은 성도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심는 일을 한다. 사탄을 이기는 길은 항상 선을 추구하며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박사님, 아멘 약 주세요.”란 책을 쓴 황수관 박사에 의하면 우리 몸에는 내장인 심장, 위, 장, 신장, 및 방광을 지배하는 자율신경이 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되는데, 교감신경은 주로 불안, 공포, 초조, 시기, 질투, 놀람, 분노, 욕심,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강력히 작용한다고 한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그 여파로 심장이 급하게 뛰고 소화불량이 되는 등 내장에 병을 초래한다.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리는 것도 바로 교감신경 작용의 결과라 한다. 이에 반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 건강해진다. 기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촉매제들이다. 이 부교감신경이 자극되어야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은 부교감신경을 크게 자극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해 주는 것이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을 비롯하여 수 천곡의 찬송가를 작사한 하니 그로스비

하나님의 영광



안녕하세요. 영광이 엄마입니다. 3개월 전 뉴스와 인터넷,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던 사과머리 영광이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1년 전 두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서 일하던 남편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중국 청도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둘째 영광이의 폐가 안 좋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일이 우선이라 저희 부부는 큰아들을 다시 중국 이모집에 맡기고 영광이의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통해 영광이는 1차 성적 폐동맥고혈압이란 희귀질환으로 최종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생존기간이 길어야 2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광이의 병은 점점 급속히 진행되었고, 폐기능검사를 진행해봤더니 영광이의 수명은 앞으로 6~8개월 정도라고 했습니다. 담당교수님께서서는 유일한 방법은 폐이식인데, 한국에서 소아폐공여자는 거의 0%이고, 국내 소아폐이식 예후가 없어서 성공률이 10~15%로 너무 낮다는 소견입니다. 2017년 12월말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실려온 영광이는 혈관이 터지고 객혈하면서 산소와 심장수축수액에 의지한 채 하루하루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죽음을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응급상황이 닥치고 보니 진정 영광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영광이를 품에 꼭 안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중국에 계시는 조준애 전도사님께 영광이의 사연을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한국에 계시는 상화평 목사님의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뜻밖으로 병동까지 심방 오셔서 영광이와 저에게 기도해주시며 “영광이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상 목사님께서서는 제가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병동에 오셔서 기도해주시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타국에서 외롭고 불안하고 복잡했던 저의 마음은 점차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다시 돋고 기도의 용기와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한국 예수중심교회와 미국 휴스턴, 일본 등 세계 방방곳곳에서 영광이를 위한 중보기도가 이어지고 저희에게 응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믿음으로 저의 마음은 긍정적인 변화가 왔고, 누워만 있던 영광이는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이가 입원한지 3개월째 들어서는 그때, 바로 2017년 3월 10일, 상 목사님께서 네 번째로 병동에 오셔서 기도 마치고 떠나신지 30분정도 지나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영광이에게 공여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의 폐사이즈와 맞고 혈액형까지도 같은 공여자가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폐를 우선적으로 공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중심교회와 해외 많은 분들의 합심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계획적으로 섬세하게 준비하셨습니다. 13시간의 기나긴 수술 후 폐이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빠른 회복과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술 후 회복하면서 그 극심한 고통은

여덟 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아직은 너무나 어리고 취약했습니다. 영광이는 깨어나지도 못한 채 내성이 강한 균에 감염되어 쇼크 상태였고, 고열에 급성폐렴이 와서 호흡곤란이 오고, 수술부위가 출혈되고, 오른쪽 폐가 기능을 못해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교수진들은 여러 차례 비관적 전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15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중환자실에서 영광이를 직접 돌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또 한 차례 기적을 창조하셨습니다. 5주 만에 영광이는 기적같이 깨어났고, 삼관을 성공적으로 뽑고, 7주 만에 일반병동으로 옮겨 회복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48일째 만에 영광이는 저의 품속으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차차 서기도 성공하고 걷기도 도전하고, 성대도 돌아와 말도 한두마디 시작했습니다.

영광이는 국내 성인폐절제로 소아이식에 성공한 첫케이스가 되어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국내 5,000여명의 똑같은 환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뉴스에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축하메시지와 응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해져 왔습니다. 해외로도 발표되면서 중국, 대만, 홍콩 등 유명병원들의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영광이가 퇴원하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그때, 영광이가 회복과정에 거대세포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광이는 다시 각종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러스와의 기나긴 싸움이었습니다. 다른 장기 쪽으로 침범되면 이차성적인 암이 발생될 우려가 커서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를 바꿔서 치료를 다그쳤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어서 결국 고가의 비급여약까지 투여하였습니다. 영광이의 몸이 붓고 소변도 잘 못보고 밥도 잘 못 먹더니 결국 신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영광이는 약물부작용으로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우리를 인도해주시던 상 목사님께서 갑자기 왼손에 마비가 와서 정밀검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화로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목사님을 의지해왔던 저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놓고 구석에 숨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날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이가 잠든 후 목사님의 건강과 예수중심교회의 미래 축복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애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며칠 지나 목사님의 손은 조금씩 감각을 찾기 시작했고, 영광이의 바이러스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부담되었던 물질적 부분도 기적같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막차를 타고 오셔서 계획하신대로 때를 따라 이루어주심을 실감합니다. 8월 중순에 영광이는 하나님의 보호 하에 퇴원을 하고 지금은 집에서 씩씩하게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는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다시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고 마음껏 걷고 뛰어놀 수 있습니다.

영광이와 우리 가족,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싸워나가야 할 길이 멀고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목사님과 예수중심교회, 그리고 해외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로 턱없이 부족하지만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영광이 엄마 박화숙 올림

:: 한라에 핀 사론의 꽃 ::

희망이 현실이 되는 습관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습관을 길러야 한다. 생각의 전환,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생각한 것과 입으로 내뱉은 말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내가 그림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고3, 그 해는 IMF의 여파로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시작된 해였다. 그 여파는 우리 가정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체능으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입시학원 대신 집에서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건 물론, 두어 번 짜 쓰면 없어지는 비싼 물감을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결과, 난 대학에 떨어졌고, 재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나의 환경에 수긍하며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 후 난 ‘이 상황에 내가 무슨’, ‘내가 그렇지 뭐’,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던 27세인 여름, “꿈은 바랄 수 없

는 것을 바라는 것이며, 비현실적인 이상을 품는 것이다.”, “고착된 사고의 틀을 깨고 생각의 속도를 낸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고 하신 이초석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목사님의 말씀은 오랜 시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했다. 그 시간을 통해 늘 모든 것에 부정적이던 나의 생각에 변화를 가져왔고, 변화된 생각은 언어로, 그 언어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지금의 ‘대학교수’라는 직위는 이 세 가지 습관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책을 통해 “행복해지고 싶다면 낙관주의자가 되어야하고, 낙관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아무리 극단적인 비관주의자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언어습관을 기른다면 누구나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수년,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사고방식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본인이 그렇다는 것을 누군가 알려주거나, 심각한 상황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스스로 깨닫지 못함으로써 언어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마련이다.

언어는 생각에 의해 표현되고, 언어의 핵심은 행동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주변을 보면 언어중추가 영향을 받아 언어체계를 바꿔버리고, 우리의 행동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대의 개념으로는 긍정적인 생각과 더불어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면 우리의 행동 역시 선하고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꿈, 희망, 이런 것은 한 순간에 갑자기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초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마음에 품고 난 후 가장 먼저 한 일

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들이 뭘까 고민하면서,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로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의 나의 모습은 내가 꿈꾸고 말하고, 행동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잠언 18장 20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 ‘혀를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면 아름다운 언어의 열매를 누릴 수 있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바라고 행동하면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착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습관’, ‘유익하게 말하는 습관’, 그리고 생각과 언어대로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 꿈과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기를 소망해본다.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권정미 성도
jmgood77@gmail.com